

교회소식

- 오늘 친교시간에 재정부 사무실에서 예결산위원회로 모입니다.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9회계년도 세무보고관련 헌금내역을 나눠드립니다.
- 공동의회 공고
 - 일시: 2월9일(주) 주일예배 후 본당
 - 안건: 2019년 결산 보고 및 2020년 예산 승인
- 선교부: 2020년 세광교회 단기선교
 - 기간: 2020년 2월17일 - 21일(Presidents Day Week)
 - 장소: Honduras (최문재 선교사)
 - 단기선교 모임을 2시 50분 소예배실에서 갖습니다.
 - **학용품과 어린이 옷**(2-8세, 특히 5세 이하) 도네이션 받습니다.
 - **이민가방** 있으신 분들은 교회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 단기선교팀을 위해 **라이드**(17일 주일 새벽 공항까지, 21일 금 밤 공항에서) 도와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 오늘 혼두라스 선교를 위한 **Youth Group "Bake Sale"**과 **약품 포장** 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PCA 한인동북노회 뉴욕시찰회 연합제직수련회
 - 강사: 정호영 (Dr. Joshua Jong, 뉴하이드파크 장로교회 담임, 목회적 돌봄 선교센터 교수, AAPC Fellow)
 - 강의제목: "행복한 교회는 나의 발견과 성장으로부터"
 - 일시: 2월 2일(주) 저녁 5시
 - 장소: 뉴하트선교교회 (정민철 목사) 17 Herzog Pl., Hicksville, NY 11801
- 출애굽기 소그룹성경공부를 시작합니다.
 - 토요일 아침 7시30분: 2월8일 개강
 - 목요일 저녁 8시: 2월27일 개강

섬기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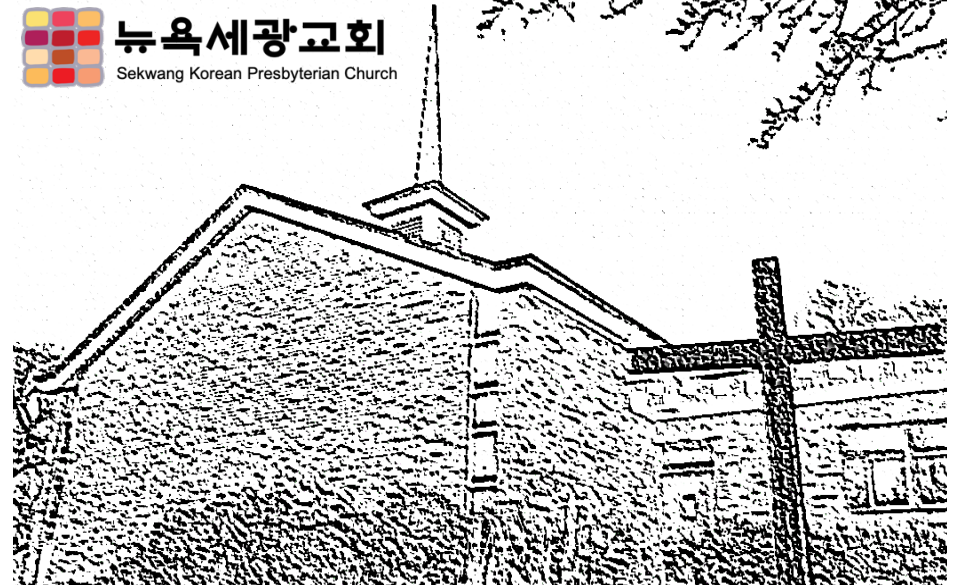
2월 안내: 박흥매 집사
다음 주 대표기도: 윤정호 집사 (시 112:1-9)
이번 주 친교: 하영미 집사, 안정자 권사
다음 주 친교: 송은주 집사, 노미라 집사

기도

"영혼이 잘 됨 같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위해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
 심령에 들려 열매 맺는 말씀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직하고 담대하게 선하신 뜻을 구하는 기도
 "범사에 강건하기를": 교제와 양육이 풍성해지도록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 거룩과 성령충만, 지혜와 은사, 강건함을 위해
 선교사를 위해: 순돈호(솔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이정석(WEC 본부), 장영호(러시아 미전도 종족),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 (필리핀), 최문재 (혼두라스)

제20권 5호

2020년 2월 2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 5:14)

예 배 안 내		주 일 학 교	
English Service	10am / Sanctuary	유치부	12pm / 유치부실
주일 예배	12pm / 본당	유년부	12pm / 유년부실
금요 기도회	8pm / 본당	중·고등부	12pm / 소예배실
토요 새벽기도	6am / 본당		

성경공부 및 모임

창세기 성경공부 TBD
 중·고등부 성경공부 금 8pm / 소예배실
 새가족 모임 주일예배 후 목회자실
 구역 모임 구역별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민영
 사무장로: 김동수, 서영수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지휘자: 임대영 / 반주자: 이영미

교회 연락처

(914) 874-3606 / nyskch@gmail.com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Homepage: www.nysekwang.org
 Podcast: 뉴욕세광교회 주일설교
 English Worship Sermons @ Sekwang



English Service

<10am>

Worship Leader: **Pastor Edwin Kim**

- Opening Praise ----- “10,000 Reasons” ----- Together
- *Call to Worship ----- Together
- *Worship & Praise ----- Together
- Confessional Prayer ----- Together
- Apostle’s Creed ----- Together
- Offering Prayer ----- Leader
- Word of God ----- **Galatians 6:9,10** ----- Pastor Kim
- Sermon ----- **“Doing Good is Underrated”** ----- Rev. Minyoung Lee
- Intercessory Prayer ----- Together
- Closing Praise ----- “Heart of Worship” ----- Together
- *Benediction ----- Rev. Lee

주일 예배

<오후12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 *입례찬송 ----- 1장(통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함께
Opening Hymn **God is Our Refuge Strong**
- *경배와 찬양 ----- 다함께
Worship & Praise
- *신앙고백 ----- 다함께
Apostle’s Creed
- *찬송 ----- 96장(통94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 다함께
Hymn **Who, You Ask Me, is My Jesus**
- 대표기도 ----- 시편 84 ----- 오영숙 집사
Prayer **Psalm 84**
- 찬양 ----- “목마른 사슴같이” ----- 세광 찬양대
Anthem **Sekwang Choir**
- 봉헌기도 ----- 인도자
Offering Prayer
- 성경봉독 ----- **이사야54:1-10** ----- 인도자
Word of God **Isaiah 54:1-10**
- 설교 ----- “아끼지 말고 널리 퍼되” ----- 이민영 목사
Sermon
- 인사 및 광고 ----- 인도자
Greetings & Announcements
- *찬송 ----- 302장(통408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 다함께
Hymn **The Mercy of God is an Ocean Divine**
- *축도 ----- 이민영 목사
Benediction

*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지난 주 주일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사야 52:13-53:12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에 관한 노래(42:1-8; 49:1-7; 50:4-9; 52:13-53:12) 중 마지막 네번째 노래입니다. 이 종은 하나님께 “전한 복된 소식”이고 “나타난 팔”입니다(53:1).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아무도 못 알아볼 정도로 불품없는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53:1-3). 실은 그제 우리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차마 인정하지 못하고 직면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과 슬픔을 짊어지신 것이었습니다(53:4-6). 그 연약함과 고난은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감당한 것이고, 우리 징벌을 대신 받은 것입니다. 그 희생이 너무나 크고 그 공훈은 너무나 완전해 모든 공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고난을 순종과 겸손과 온유함으로 받으신 것입니다(53:7-9).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하셨지만 억울하다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따지는 데 능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면 해결될 줄 압니다. 문제의 원인이 남에게 있으면 정죄하고, 상황에 있으면 원망합니다. 나에게 있는 걸 부인할 수 없으면 좌절하고 주저앉거나, 남들도 그렇다고 변명하며 타협합니다. 그러나 종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편이 되어서, 아니 가장 연약한 자가 되어서 감당했습니다. 거기에 치유와 구원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고난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었고, 종도 그 고난을 보고 만족히 여겼다는 겁니다(53:10-11).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게 된 것을 자기가 죽는 것보다 기쁘게 여겼습니다.

이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랑이 과연 허다한 허물을 덮었습니다. 우리를 자기 편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우리에게 해주신 가장 크고 놀라운 것은 무슨 다른 능력이나 은혜 보다도, 우리 편이 되신 겁니다. 따지지 않고 우리 연약함을 자기 것인 양, 우리 범죄함을 자기 책임인 양 감당하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때문에 자기의 불의한 고난을 기뻐한 것입니다. 자기 편인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그 고난과 멸시가 희생이 아니라 영광이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신 언약을 지키신 신실입니다.

이 사랑을 알고 또 알아야 하겠습니다. 내 생각과 판단에 하나님이 해주신 일, 내가 그에게 받은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훈을 재려고 하지 맙시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아버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우리의 범죄함까지도 덮어 버리시는 그 사랑의 팔에 안깁시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 편이 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 편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의 의미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게 서로를 용납하며, 형제의 평강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우리를 덮으신 하나님의 사랑 아래 함께 한 편이 된 우리들의 영광이며 특권입니다.

<Memo>